

한국어 학습자의 높임 선어말어미 '-시-' 사용 양상 연구

엄진숙*

|| 차례 ||

- I. 머리말
- II. 연구 배경 및 연구 문제
- III. 자료 분석 방법
- IV. 분석 결과 및 논의
- V. 맺음말

【국문초록】

선어말어미 '-시-'는 서술어에 결합하여 주로 문장의 주어 높이는 데에 사용되는 문법 범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구어 담화에서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는 양상이 실제로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모국어 화자의 사용 양상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어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의 구어 말뭉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동사 의미에 '-시-'를 결합해 높임 의미를 실현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 높임 유형을 실현하는 양상이 크게 나타났으며 모든 품사에 직접 높임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국어 화자가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결합의 경우 간접 높임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었다. 한국어 학습자는 간접 높임 유형의 경우 형용사 결합 비율이 높았으나 어휘 종류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또 '-시-'를 종결어미에 결합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세요' 유형의 한정된 어휘를 결합한 문장 비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요'를 제외한 분석 결과에서는 두 집단 모두 '-시-'를 연결어미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영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강사

또한 ‘-시-’ 높임의 확대와 관련해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화자에 비해 과잉 높임 양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 모두 ‘-시-’를 대화에서 직접 대면하고 있는 청자를 높이는 데에 더 많이 사용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청자 높임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시-’ 교육과 관련해 ‘-세요’ 종결어미의 제시와 함께 ‘-시-’를 다양한 품사 및 어말어미에 결합한 양상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언어 사용에서와 같이 화자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청자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시-’의 용례를 더욱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제어: 높임 선어말어미 ‘-시-’, 한국어 학습자, 모국어 화자, 직접 높임, 간접 높임, 높임의 확대

I. 머리말

본 연구에서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의 사용과 관련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하 ‘한국어 학습자’로 줄임)의 경우 어떠한 사용 양상을 나타내는지¹⁾ 살펴보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시-’에 관한 교육에 대해 고찰해 보려고 한다.

‘-시-’는 한국어의 주체높임법으로 일반적으로 문장의 주어 즉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기능이 있다. 실제로 주체높임 선어말어미는 한국인 모국어 화자들(이하 ‘모국어 화자’로 줄임)의 평소 언어 사용²⁾에서 일상적으로 자

1)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에 공개되어 있는 말뭉치를 활용하였으며, 원시 자료도 추가적으로 참고하였다(<https://kcorpus.korean.go.kr>).

2)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언어정보나눔터에서 공개하고 있는 말뭉치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21세기 세종계획 국어 특수자료 구축의 결과물로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에서 분석한 주석 파일이다(<https://ithub.korean.go.kr>).

주 출현한다.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시-’가 초급부터 제시되는³⁾ 문법 범주인 것은 모국어 화자의 언어 사용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시-’ 사용 양상을 모국어 화자의 사용 양상과 비교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한국어 교재의 ‘-시-’ 관련 내용을 함께 검토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 배경 및 연구 문제

이 장에서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의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 ‘-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1. 높임 선어말어미 ‘-시-’

한국어의 주체높임은 말하는 이가 주체에 대한 존경, 혹은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⁴⁾ 것이다. 주체높임은 주어를 언어적으로 알맞게 대접하는 경어법으로서 주어에 쓰인 인물이 존귀하여 존대해야 할 때 그 서술어의 어간

3) 본 연구에서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의 통합적 교육을 목표로 하는 통합 교재의 성격을 띠는 한국어 교재 5종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대학 교육 기관에서 1급에서 6급까지 언어 수준별 시리즈로 펴낸 교재들이다. ‘-시-’는 <서울대 한국어> 1B 9과, <연세 한국어> 1급 3과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서강 한국어>의 경우 1A 6과에서 명령형 ‘-(으)세요’를 시작으로 1B 3과, 2A 1과에서 순서대로 제시되고 있다. 또 <말이 트이는 한국어>는 초급 1권 8과에서 ‘-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어> 초급 I 에서는 의문형 ‘-(으)세요’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17과에서 ‘께서 -(으)십니까’를 제시하는 등 ‘-시-’는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 초급 과정의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4) 남기삼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1993, p.327.

에 '-시-'를 결합함으로써 성립된다.⁵⁾ 주체높임은 선어말어미 '-시-/-으시-6)'로 실현되는데 현대 국어에서 높임의 기능을 수행하는 선어말어미로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주체는 문장의 주어⁷⁾가 지시하는 대상을 의미하며 화자는 일반적으로 주체의 나이, 사회적 지위, 성별, 주체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시-'를 선택적으로 실현하여 높임의 의도를 드러낸다.

(1) 광고에 대한 대화⁸⁾

P3: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또 회사별 그걸로 묶어 주는 또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고.

P6: 음:: 그것도 괜찮네요.

그런데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구어 담화에서는 문장의 주체가 곧 청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시-'는 청자 높임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어 문법에서 '-시-'의 청자 높임의 의미가 드러나는 상황 맥락에 대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한국어 교재 내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어 문법에서 '-시-'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로 주로 주어의 행위를 높이는 기능을 가지는 문법 범주로 기술되고 있으며, 상대높임과 관련해서는 거의 기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5) 이익섭, 『국어학 개설』, 학연사, 1986, p.105.

6) 서술어의 어간 받침 유무에 따라 달리 결합하는 이형태로 본 연구에서는 대표형 '-시-'로 표기하고자 한다.

7) 박석준(2002)에서는 '-시-'의 통사적, 의미적 기능이 '주어 존대'임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Ho-Min Sohn(1999:412)에서도 '-시-' 형태에 대해 'a productive suffixal device for subject honorificat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8) 본 연구의 예문은 각주1, 2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립국어원 말뭉치 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여 국어 교육에서는 ‘-시-’에 관한 문법 교육 내용의 기술이 주체높임에 한정되어 기술되어 있다는 점과 상대높임 종결어미와의 결합 양상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언어 사용 중심의 문법 교육 내용 재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⁹⁾¹⁰⁾

한국어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시-’의 기능과 용례의 경우에도 문장 주어의 지위나 나이 등의 의미를 강조하여 그 용법을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¹¹⁾ 이와 관련해 한국어 교재에서 청자 높임을 전제로 한 화제인 해오체로 대화문을 제시할 때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결합한 형태를 그렇지 않은 형태보다 먼저 제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¹²⁾

‘-시-’는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 이외에도 아래 예문과 같이 주체의 신체 부분이나 소유물 등 주체와 관련 있는 것을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 간접높임의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간접높임에서 주체의 소유물이나 부착물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삼가야 하며 동일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서술어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자연스러운 정도가 달라 한국어의 높임법은 까다로운¹³⁾ 면이 있다.

(2) 화장품 구매 대화

P1: 샘플 썼는데 언니, 기초가 쪼끔 따끔 따끔거려서.

9) 오현아, 「선어말어미 -시-의 문법 교육 내용 검토: -시-의 청자 높임 기능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40집, 2014, pp.157-180.

10) 이러한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바이며, ‘-시-’의 교육에서 화자와 청자의 대화자 요인에 따라 상대높임의 종결어미와 함께 ‘-시-’의 용례를 풍부하게 제시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11) 이와 관련하여 IV.3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12) 오광근, 「한국어 교재의 경어법 대화문 제시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 『새국어교육』 제94집, 2013, pp.341-360.

13) 민현식, 『국어문법 연구』, 역락, 1999, pp.181-182.

P2: 화끈거리실 적에, 일시적으로 화끈거리세요? 안 그러시면 계속 화끈거리세요?

위의 예문 (2)와 같은 간접높임을 보면 화자(P2)는 상대방(P1)의 신체 부분인 '피부'를 높임의 대상으로 하여 '-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사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다음 (3)의 예문을 보면 화자는 청자를 높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심지어 관련이 없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시-'를 사용해 높임을 실현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3) 세계화에 대한 토론

P1: 그냥 한 시간, 이번 주부터 한 시간 늦추게 됐어요.

P3: 오늘이 가장 출석률이 저조하신가요?

P1: 예,

이처럼 구어 담화에서는 문장 안에서 인물 주어를 복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시-'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시-'는 청자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상황 주체'로 설명할 수 있다. 상황 주체는 '발화 상황을 좌우하는 힘을 가진 존재로서 발화 상황 및 화자의 높임 행위를 지배하는 청자'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상황의 주체'를 가리킨다.¹⁴⁾ 다음 예문 (4)의 경우도 상황 주체높임의 예로 볼 수 있는데, 문장 안에 '되시다'의 높임 대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다른 주어와 관련 짓는 것도 자연스럽게 않은 경우이다.

(4) 화장품 구매 대화

P2: 오후쯤 되시면 입술이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뭉쳐서 각질처럼

14) 이정복, 「상황 주체 높임 '-시-'의 확산과 배경」, 『언어과학연구』 제55집, 2010, p.223.

일어나시는데 쉽게 몽쳐서 뭐~ 각질처럼 일어나거나 그런 것 없이,
평장히 축축하게 하루 종일 유지되는 거구요.

상황 주체는 곧 ‘청자’가 되고 ‘-시-’는 주체높임과 함께 청자를 높이는 기능을 함께 갖게¹⁵⁾ 된다. 이처럼 간접높임 유형에서는 문장 구조 안에서 높임의 대상을 문장 안에서 의미적으로 실제적인 주어로 복구할 수 없는 양상으로 ‘-시-’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시-’의 사용이 과잉 양상을 띠며 주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대상까지 높이는 언어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이는 구어 담화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 매신 넥타이는 참 예쁘시네요.’의 경우에는 높임의 지나친 사용이나 ‘과장님은 넥타이가 잘 어울리십니다.’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의 결합이 정상적이라고¹⁶⁾ 보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의 경우 전자와 같은 사용이 자주 등장할 만큼 실제로 현대 국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크게 높임의 확대 양상으로 보고 한국어 학습자의 ‘-시-’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다양한 문법적 높임 형태소와 더불어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의 사용 역시 하나의 공손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정받고 승인받으려는 청자의 적극적 체면 욕구를 보상하기 위해 화자가 사용하는 문법적 형태를 이용한 공손 전략인 셈이다. 즉, 주체높임 선어말어미는 화자가 공손성을 드러내고자 의도적으로 선택해 사용하는 문법적 장치로서 적극적 공손 전략에 포함된다.¹⁷⁾ 이처럼 현대 국어에서 ‘-시-’의 사용은 언어 화

15) 앞의 책, p.219.

16) 민현식, 『국어 문법 연구』, 역락, 1999, pp.181-182.

17) 엄진숙, 「한국어 학습자의 공손성 실현 양상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자가 높임의 문법 형태소를 확장해 사용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공손성을 실현하며 목표로 하는 언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언어 전략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체높임 '-시-'의 용법은 화자가 주체를 각별히 한 사람의 개체로서 친애감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높이는 뜻이 있으며, 사회규범적인 격식 이상의 화자와 주체 사이의 개별적 혹은 개인적 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¹⁸⁾고 볼 수 있다. 이는 '-시-'를 사용하는 맥락을 판단하는 기준이 개별 화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¹⁹⁾ 즉, '-시-'의 사용에 작용하는 화자의 의도와 전략을 전적으로 배제하고서 그것의 기능을 동작 주체가 지닌 상위자로서의 지위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하나의 기능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수많은 예외가 불필요하게 생겨날²⁰⁾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도 '-시-'의 높임의 확대 양상이 예외가 아닐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연구 문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는 주체높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어말

2014, pp.42-44.

18) 남기삼·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1993, p.331, p.328.

19) 홍승아(2014) 연구 참고.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서 특히 공손성과 관련된 연구는 개별 화자의 특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학습자 언어에 대해 절대적인 정답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방식, 가령 설문지나 DCT(답화 완성 과제)와 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판단하는 조사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시-'의 사용과 높임조사 '께서'가 함께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오류로 판단하는 방식의 연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시-' 사용의 문법적인 정확성을 살펴보는 데에 초점을 두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공손성을 실현하고자 화자가 전략적으로 선택해 사용하는 '-시-' 사용 양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 이정복, 『한국어 경어법, 힘과 거리의 미학』, 소통, 2009, pp.27-28.

어미로서 직접높임과 간접높임의 방식으로 실현되며, 구어 담화 상황의 경우 맥락상 청자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며 나아가 상황 주체높임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등 높임의 확대 양상이 나타난다. 언어 화자가 상황에 맞게 ‘-시-’를 제대로 결합해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용법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시-’의 실제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모국어 화자의 ‘-시-’ 사용 양상과 비교·검토하게²¹⁾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 학습자의 ‘-시-’ 사용 양상은 어떠한가 이를 모국어 화자의 사용 양상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가?
2. 위의 분석 결과가 ‘-시-’의 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Ⅲ.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21)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시-’ 사용의 정확도를 판정하는 등의 오류에 중점을 둔 연구가 아님을 거듭 밝힌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목표 사회에서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 즉 L2(Second Language)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는 연구 방법 가운데 목표어 화자의 실제 언어 사용 양상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이처럼 외국어 학습자의 습득 및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모국어 화자의 언어 양상과 비교한 연구들로는 Bardovi-Harlig & Hartford(1993), J.César Félix-Brasdefer(2004), 윤은미(2004), 이정화(2008), 채영주(2010), 안희돈 외(2009), 엄진숙(2014), 이금양(2017) 등 여러 논문이 있다.

'-시-'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선어말어미(EP)22) '-시-'와 '-으시-'를 검색 조건으로 하여 구어 자료에 한해 형태 주석 검색 결과 총 484개 표본(텍스트)이 검색되었으며 그중에서 1,046건의 문장, 총 5,386어절(15,973자, 공백 제외)23)을 분석하였다.

또한 모국어 화자의 '-시-' 사용 양상은 국립국어원의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말뭉치 자료는 모두 구어 대화를 전사한 자료이며 화장품 구매 대화, 식이요법에 대한 진료 대화, 광고에 대한 대화, 언어에 대한 대화, 세계화에 대한 토론, 언어생활에 대한 토론(1, 2), 언어와 사회에 대한 토론(1, 2)으로 총 9개의 표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자료 총 45,107어절을 분석하였다. 각 구어 자료의 대화자는 학생과 매장 직원, 한의사와 회사원(환자), 강사, 대학생,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출된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사용된 문장을 높임 유형, 결합 품사, 높임의 확대 여부 등에 따라 분석하여 횡수와 백분율로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높임의 확대는 주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높임의 인물 주체를 문장 안에서 복구할 수 없거나, 복구하더라도 어색하여 높임의 과잉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24) 그 대상으로 포함해 분석하였다.

22) 구어 말뭉치 활용 방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서상규 외(2013)를 참고하면 된다. 말뭉치를 주석 표기한 방식의 한 예를 보면 '하시는'의 경우 '하/VV+ 시/EP+ 는 /ETM'으로 분석되어 있다. 여기에서 영어 약자는 순서대로 '동사 어간', '선어말어미', '관형형 전성어미'를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어말어미 '시/EP'를 검색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23)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의 형태 주석을 검색하여 추출된 문장의 어절 수인 데 비해 모국어 화자 말뭉치의 경우는 구어 대화 자료를 전사한 전체 어절 수이다. 한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경우 국립국어원에서 배포하는 원시 자료를 받아 추가 검토하였음을 밝힌다(파일명: 2015-2018_원시&형태&오류 주석 말뭉치_20190523).

IV. 분석 결과 및 논의

1. 한국어 학습자의 '-시-' 사용 양상

이 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실제 구어 담화에서 '-시-'를 사용하는 양상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다음의 <표 1>은 한국어 학습자가 사용한 '-시-'의 높임 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한국어 학습자가 '-시-'를 결합하는 어휘는 주로 동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 90.3%, 형용사 7.2%, 서술격 조사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높임 유형에서는 직접높임이 95.8%로 나타났으나 간접 높임은 매우 낮은 비율인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직접높임 유형에서 동사 결합이 93.6%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간접높임의 경우 형용사 결합이 64.5%로 높게 나타났다.

< 표 1. 한국어 학습자의 '-시-' 높임 유형 양상 1 >

| 결합 품사 \ 높임 유형 | 직접높임 | 간접높임 | 총합 |
|-----------------------|-----------------|----------------|------------------------------|
| 동사 | 93.6% (663회) | 12.9% (4회) | 90.3% (667회) |
| 형용사 | 4.7% (33회) | 64.5% (20회) | 7.2% (53회) ²⁵⁾ |
| 서술격 조사 ²⁶⁾ | 1.7% (12회) | 22.6% (7회) | 2.6% (19회) |
| 총합 | 95.8% (708회) | 4.2% (31회) | 100% (739회) |

24) 높임의 확대 양상 분석은 연구자의 일차적 분석 후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높임의 과잉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설문조사에 관한 추가 설명은 후술하였다.

25)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는 형용사 '안녕하다'가 총 307회가

이 결과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는 '-시-'를 사용해 높임을 실현할 때 의미적으로 동사 어휘의 동작이나 행위의 의미적 특성에 '-시-'를 많이 결합해 대상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한국어 학습자는 '-시-'를 동사의 의미적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높임의 문장 구조로 적절히 실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표 2. 한국어 학습자의 '-시-' 높임 유형 양상 2 〉

| 결합 품사 \ 높임 유형 | 동사 | 형용사 | 서술격조사 |
|---------------|-----------------|----------------|----------------|
| 직접높임 | 99.4% (663회) | 62.3% (33회) | 63.2% (12회) |
| 간접높임 | 0.6% (4회) | 37.7% (20회) | 36.8% (7회) |
| 총합 | 100% (667회) | 100% (53회) | 100% (19회) |

또한 '-시-'를 결합한 동사의 사용 횟수를 전체로 보고 높임 유형을 분석한 <표 2>의 결과에서도 한국어 학습자는 직접높임의 문장 구조에서 '-시-'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보면 동사는 직접높임이 99.4%, 간접높임이 0.6%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형용사의

나타났는데 모두 '안녕하세요'와 '안녕하십니까'의 형태였다. 이는 '안나세요'나 '안녕하세요'와 같은 형태 오류의 경우도 포함된 횟수이다.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표본 수가 484개임을 고려해 볼 때 각 표본마다 평균 1회 이상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는 주체를 높이는 데에 있어 문법 형태소를 활용하는 한편 '-시-'가 결합된 인사말 관용구를 사용하는 비율이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시-' 사용 가운데 무려 29.3%에 해당되며 비교적 높은 비율로 판단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두 가지 인사말 관용구 표현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따라서 '-시-'가 결합된 형용사의 총 출현 빈도는 53회가 된다.

26) 서술격 조사는 명사에 결합한 '이다' 형태이다. 지정사로 함께 분류되는 부정의 '아니다'의 경우에는 형용사에 포함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경우 62.3%가 직접높임, 37.7%가 간접높임으로 나타났다. 서술격 조사의 경우 직접높임이 63.2%, 간접높임이 36.8%로 분석되었다. 동사와 형용사의 경우 모두 직접높임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간접높임 문장 구조에서 주로 ‘-고 싶으시다’나 ‘-지 않으시다’와 같은 보조 형용사에 ‘-시-’가 결합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임 대상의 신체 부분이나 소유물 등의 상태 또는 성질을 나타내는 어휘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선행하는 본용언의 동사적 의미에 ‘-시-’를 결합해 높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가 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시-’를 결합하여 높임을 실현하는 양상이 두드러짐을 말해 준다.

또 한국어 학습자는 다음 예문과 같이 간접높임 구조에서 ‘-시-’를 여러 품사에 결합하여 높임을 실현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 (5) 가. 가까이서 포았더니 한식집이었어요. 식당 안으로 돌아갔는데 키가 작으신 할머니가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인터뷰, 4963, 스웨덴어²⁷⁾)
 나. 그래서 아 만델라 대통령에 대한 완심(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분의 자소년을 지르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발표, 4961, 싱할라어-스리랑카인)
 다. 선생이 끝나고 아 지금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에서 뭐가 뭐였지 열심히 그 중공업을 중심으로 XX 그거 덕분에 좀 계발한 거 같긴 해요. 어.(발표, 8258, 일본어)
 라. 칠십 세이세요. 우리 어머니 음 육시 육십 슬이세요. 아 그래서 어 우리 보모니 대 대에 어 계세요.(인터뷰, 8326, 영어-캐나다인)
 마.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인터뷰, 13890, 중국어)
 바. 스트레스가 어 안 쉽게 어 생기시기 바랍니다.(발표, 10177, 타이어)

27) 이는 구어 담화 유형과 한국어 학습자의 말뭉치 표본 번호 및 모국어 정보를 나타낸다.

(5가)의 '키', (5나)의 '관심', (5다)와 (5라)의 '나이', (5마)의 '전공', (5바)의 '스트레스'는 각각 주체와 관련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간접높임은 주체의 신체, 소유물, 생각 등 관련 있는 대상을 높이는 것인데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높임의 과잉 양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3회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간접높임의 사용 중에 약 9.7%에 해당된다.

(6) 가. 어 뜨거운 온탕에 들어갈 때 어머니가 시원하신다고 하니까 이해하지 않았습습니다.(1인 발화/내러티브, 11537, 베트남어)

나. 처 번째 질문은 한 달에 생화비는 얼마 정도 되시냐고 어으 물어봤는데 어 음 거에 어으 대부분 학생들이 어 음 한 다 생활비가 이십만원에서 사십만 원까지 정도가 되는 대학생이 제일 많은 것으로 어으 나타났습습니다. <...> 어으 또한 자주 모임에 참가하는 응답자한테 어으 회비는 얼마 정도 되시냐고 물어봤는데 거에 다 어 이삼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습니다.(발표, 4989, 중국어)

위의 (6)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문장에 등장하는 3인칭 주체(어머니)와 객체(응답자, 대학생)를 높이고 있다. (6나)의 경우 간접인용문의 문장 구조를 띠고 있기는 하나 객체를 높이고 있는 이러한 양상은 '-시-'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삼자를 높이는 데에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기존에 주체존재 선어말어미가 일반적으로 문장 주어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는 전통적 입장과 달리 언어 화자의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인용문이나 사동문과 같은 경우 주어뿐만 아니라 부사어나 관형어 등의 다른 문장성분을 높이는 경우에도 '-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²⁸⁾ 이는 '-시-' 형태

28) 이는 '-시-'가 객체높임의 문법 요소라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언어생활에서 주어뿐만 아니라 다른 문장성분과 관련지어 '-시-'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자 한 것

가 높임을 실현하는 장치로서 중요한 문법 단위임을 말해 준다. (6가)의 경우 ‘물이 시원하다고’, (6나) ‘생활비는 얼마 정도 되냐고’와 ‘회비는 얼마 정도 되냐고’ 정도로 수정할 수 있으며, 이 문장들은 대주어를 복구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청자를 높이는 기능으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높임의 사용은 화자의 개인 화법의 특성과 관련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높임의 과잉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²⁹⁾ 그 결과를 참고하였다.

〈 표 3. 한국어 교사의 ‘-시-’ 높임 과잉 여부 설문 조사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항 번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자연스럽고 적절하다 | 4 | 4 | 9 | 10 | 8 | 4 | 10 | 8 | 4 | 7 | 4 | 9 | 4 | 4 | 9 | 8 | 4 | 1 | 4 | 4 | 4 | 9 | 8 | 7 | 8 | 3 | 4 | 4 | 3 | 4 |
| 부자연스럽고 과하다 | 6 | 6 | 1 | 0 | 2 | 6 | 0 | 2 | 6 | 3 | 6 | 1 | 6 | 6 | 1 | 2 | 6 | 9 | 6 | 6 | 6 | 1 | 2 | 3 | 2 | 7 | 6 | 6 | 7 | 6 |

*단위: 명

이 조사는 간접높임 중에서 주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그 대상을 높이기 위해 ‘-시-’를 사용한 실제 대화(모국어 화자의 실제 발화 27문장과 한국어 학습자의 실제 발화 3문장)를 보고 높임의 과잉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한국어 교육 경력이 최소 6년에서 최대 16년 여성 8명, 남성

이다. 예를 들어 ‘나는 손님에게 옷을 입어 보시게 했다.’와 같은 사동문에서 ‘-시-’는 ‘입다’는 행위의 주체인 부사어 ‘손님’을 높이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선어말어미 ‘-시-’가 객체높임의 기능을 담당하는 문법 표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다만, 주체높임이 주어를 강조해 왔던 것에 비추어 다른 문장성분의 예를 보이려고 한 것이다.

29) 설문지 참고.

2명의 한국어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중에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앞의 (6가), (6나)의 3문장(문항 번호 28, 29, 30)의 경우 10명 중 6명 이상이 높임이 부자연스럽고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한국어 학습자가 '-시-' 사용에서 높임의 과잉 사용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을 뒷받침해 준다.

한국어에서 높임 표현은 문장 자체보다 화자, 청자, 그리고 제삼자라는 이야기의 장면에서 정확한 뜻이 파악된다.³⁰⁾ 화자는 이야기 장면에서 청자와 제삼자 중에 높이고자 하는 대상을 상정해 '-시-'를 사용해 높임을 실현하는 양상을 띤다. 그런데 한국어 학습자는 모든 인칭에서 '-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높임 대상의 인칭 유형에 따라 '-시-'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이다.

〈 표 4. 한국어 학습자의 '-시-' 높임 인칭별 양상 〉

| 높임 인칭 \ 구분 | '-시-' 사용 | 의미적 오류* |
|------------|-----------------|---------------|
| 1인칭 | 1.9% (14회) | 100% (14회) |
| 2인칭 | 49.7% (367회) | 1.4% (5회) |
| 3인칭 | 45.5% (336회) | 4.2% (14회) |
| 명확하지 않은 경우 | 2.9% (22회) | 알 수 없음 |
| 총합 | 100% (739회) | 4.5% (33회) |

*인칭별 사용 횟수를 전체로 보고 계산한 비율임

위의 표를 보면 한국어 학습자는 구어 담화 상황에서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청자(2인칭)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것

30) 이익섭, 『국어학 개설』, 학연사, 1986, p.367.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49.7%였다. 3인칭 높임은 45.5%로 나타났다. 한국어 학습자는 ‘-시-’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상대방을 높이는 데에 더 많이 선택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가)와 (7나)는 청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삼자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7다)는 청자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7) 가. 점수가 나왔어요. 선생님께서 한국에 한국어 책 사 권 배우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수업 들어간데 수업 듣기 시작했어요.(발표, 11615, 베트남어)

나. 저는 집에 저는 일본에 있을 때는 할머니가 다 만들어 주셨는데 요리를 근데 할머니를 하는 맛을 배워서 그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인터뷰, 8264, 일본어)

다. 단계 움직임에 따라 자주 쓰는 표지로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석사 논문 쓰실 때 이것도 활용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발표, 13892, 중국어)

또 1인칭을 높인 경우는 14회가 나타났는데 이는 모두 의미적으로 적절치 않은 예였다. 이를 포함해 ‘-시-’를 사용했을 때 의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약 4.5%(33회)로 나타났으며 오류 횟수를 전체로 봤을 때 1인칭 높임 대상일 경우 42.4%, 2인칭 15.2%, 3인칭 42.4%로 각각 나타났다. 다음은 높임 대상과 ‘-시-’를 잘못 연결해 사용한 예들이다.

(8) 1인칭 높임 오류

가. 교수님도 준경하시는 분인데 근데 수업할 때 항상 저한테 그때는 그 중국 사람 저밖에 없어요.(대화, 13861, 중국어)

나. 쯤 아 하 한국에 왔을 때 한쪽말 잘 몰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짤하시면 제가 통역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 홍역해 줘요.(인터

뷰, 11543, 베트남어)

(9) 2인칭 높임 오류

그러면 아 내일 아 창문 옆에서 몇 짜? 여섯 시 삼십 분 여섯 시 삼십 분에 만나실 만나자.(대화, 8745, 몽골어)

(10) 3인칭 높임 오류

가. 친구들이 첨말 어렵다고 오. 해 주셨어요. 해 줬어요.(인터뷰, 5095, 일본어)

나. 그 여자 주인공은 또 어 자기 어머니하고 어 부모님을 이호 이혼하고 또 어 자기의 이혼한 후에 다른 가정의 오빠를 싸랑해 가지고 사 사고도 나고 기억기도 안 나고 그냥 뭐 결국엔 어 또 병에 걸리고 또 또 들어 돌아가시³¹⁾ 그런 드라마였어요.(발표, 8297, 중국어)

이 같은 4.5%의 사용을 제외하면 한국어 학습자가 사용하는 '-시-'는 95% 이상이 의미적으로 적절한 높임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³²⁾

〈 표 5. 한국어 학습자의 '-시-' 결합 어미 양상 1 〉

| 결합 어미 | 종결어미 | 연결어미 | 전성어미 | 총합 |
|----------|-----------------|-----------------|----------------|----------------|
| '-세요' 포함 | 54.4% (402회) | 35.6% (263회) | 10.0% (74회) | 100% (739회) |

31) 이 경우 동사 어휘 '돌아가시다'를 단순히 '죽다'의 의미를 가진 독립적인 어휘로 잘못 알고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2) 박성일(2012:153)에서는 '-시-' 사용 오류를 문장 인칭별로 분석한 결과 1인칭 20%, 2인칭 13.3%, 3인칭 66.7%의 결과를 제시했으며, 엄진숙(2014:43)에서는 인칭별 오류가 1인칭 50%, 2인칭 50%로 나타났으나 3인칭은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 '-시-' 사용의 4.8%가 문장 주체에 높임 자질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시-'를 사용한 의미적 오류로 나타났다고 분석된 바 있다.

한국어 학습자는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보다 종결어미에 ‘-시-’를 더 많이 결합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난이도 및 구어 맥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말어미는 문장 구조가 단문이나 복합문이나에 따라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분류된다. 즉, 문장 구조의 복잡성 정도가 어말어미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곧 어말어미에 결합하는 선어말어미의 사용 빈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어 맥락에서는 완결된 문장을 발화하기보다 단순한 구조의 문장을 발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문이 많이 생성되며 자연스럽게 종결어미에 ‘-시-’를 결합해 높임을 실현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 표 6. 한국어 학습자의 ‘-시-’ 결합 어미 양상 2 〉

| 결합 어미 | 종결어미 | 연결어미 | 전성어미 | 총합 |
|----------|-----------------|-----------------|----------------|----------------|
| ‘-세요’ 제외 | 42.4% (248회) | 45.0% (263회) | 12.6% (74회) | 100% (585회) |

그런데 ‘-시-’를 사용한 문장을 어말어미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가 사용된 종결어미 전체 중에 154회는 ‘-세요’ 형태로 나타났다. 종결어미 전체의 38.3%에 해당된다. 즉, 종결어미에 ‘-시-’를 가장 많이 결합하였으나 활용 양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높임을 실현하는 선어말어미 ‘-시-’를 명시적으로 결합해 사용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낮다. ‘-세요’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에서는 연결어미의 비율이 종결어미보다 더 높았으나 두 가지 어미의 사용 비율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 (11) 가. 집에서 생활용품들이 하나하나 시어머님한테 물어봤고요. 시어머님
께서 가르쳐 주시면 스스로 외웠어요.(발표, 11615, 베트남어)
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엄 지금 엄 장사를 하세요.(인터뷰, 8218, 베트남어)

또한 주체높임에는 주격조사 '께서'도 보조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하는데³³⁾ '-시-'를 사용해 주체를 높이는 경우에 '께서'를 사용한 경우는 3회 나타났다. 이때 서술어의 경우 모두 주체높임 선어말어미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 가. 그래서 음 아내운 XX는 하는 것을 반대 음 해 반대하셨 했다고 하
셨어요.(인터뷰, 8943, 중국어)
나. 음 들어 들어 셔서 주세요.(발표, 17204, 중국어)

위와 같은 이중 높임의 경우는 2회 출현했는데 이 경우 모두 자기수정 발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화자가 높임의 의도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중 높임 전략을 사용하였는지 확실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 보인다.

2. 모국어 화자의 '-시-' 사용 양상

앞 장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시-'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모국어 화자의 '-시-' 사용 양상을 간략히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시-' 높임 유형의 경우 모국어 화자 역시 앞서 분석한 한국어 학습자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33) 이관규, 『(개정판) 학교문법로』, 월인, 1999, p.273.

〈 표 7. 모국어 화자의 ‘-시-’ 높임 유형 양상 1 〉

| 결합 품사 \ 높임 유형 | 직접높임 | 간접높임 | 총합 |
|---------------|-----------------|----------------|-----------------|
| 동사 | 93.2% (274회) | 41.5% (32회) | 82.5% (306회) |
| 형용사 | 6.1% (18회) | 48.1% (37회) | 14.8% (55회) |
| 서술격 조사 | 0.7% (2회) | 10.4% (8회) | 2.7% (10회) |
| 총합 | 79.2% (294회) | 20.8% (77회) | 100% (371회) |

동사 결합이 82.5%로 가장 높으며 형용사 14.8%, 서술격 조사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접높임 유형에서는 형용사 비율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사 41.5%, 서술격 조사 10.4%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직접높임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모국어 화자는 ‘-시-’ 사용의 약 82.5%가 동사에 결합해 주체의 동작이나 행위 등을 높이는 양상을 나타냈고 또 직접높임 중에서 93.2%가 동사에 ‘-시-’를 결합해 주체의 행위나 동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접높임의 경우에는 의미적 특성이 동사나 형용사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주체와 관련 있는 대상의 동작 및 행위는 물론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어휘 모두 ‘-시-’를 결합하여 그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음은 동사 결합 유형의 직접높임과 간접높임의 예로 (13)는 ‘피부(또는 얼굴)가 번들거리다’를 의미한다.

(13) 가. 식이요법에 대한 진료 대화

P2: 평소에 이만큼 먹는 게,

P1: 예. 평소에 한 이천 정도 먹는다고 가정할 때, 한 오백에서 칠백 정도 먹자, 하는 거구요, 일 단계는 천이백 칼로리. 이게 좀~ 인제 XX한테,

천 칼로리 정도 그러니까요, 한 내가 칠백 먹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은, 한 요정도, 먹는. 천 칼로리 정도 먹겠다, 라고 개념을 잡으시고요.

나. 화장품 구매 대화

P2: 티존 부위로 자주 번들거리세요?

P1: 예.

다음은 '-시-'를 결합한 각 품사의 사용 횟수를 전체로 보고 높임 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동사는 직접높임이 89.5%, 간접높임이 10.5%로 나타났다. 이와 상반되게 형용사의 경우 간접높임이 67.3%, 직접높임이 32.7%로 나타났다. 서술격 조사의 경우 직접높임이 20.0%, 간접높임이 80.0%로 분석되었다.

〈 표 8. 모국어 화자의 '-시-' 높임 유형 양상 2 〉

| 결합 품사 \ 높임 유형 | 동사 | 형용사 | 서술격조사 |
|---------------|-----------------|----------------|---------------|
| 직접높임 | 89.5% (274회) | 32.7% (18회) | 20.0% (2회) |
| 간접높임 | 10.5% (32회) | 67.3% (37회) | 80.0% (8회) |
| 총합 | 100% (306회) | 100% (55회) | 100% (10회) |

이는 결국 모국어 화자의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의 실제 사용을 양적 분석을 통해 분석했을 때 직접높임과 간접높임을 실현함에 있어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적 특성이 그 결합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다음은 간접높임이 사용된 예문이다.

(14) 세계화에 대한 토론

P3: 근까 어디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일테면 *** 형 같은 경우에는, 그 경북 엑 엑센트가 강하시잖아요,

P2: 나도 경북 엑센트 강한데,
<...>

P3: 저도 그 그 형이 얘기해 줘서 산 것도 몇 개 있고,

P1: 어, 형보다 한 살 더 많으신가?

P3: 예,
<...>

P1: 근데, 어찌 되었건, 전도가 굉장히 거의 최고의 목표 아닌가요?

P4: 기독교세요?

P1: 아 예.

또한 모국어 화자의 '-시-'의 간접높임 유형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전체 사용 횟수에 대비해 높임의 확대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간접높임 77회 중 '-시-' 높임의 확대 양상으로 보이는 경우는 약 18.2%(14회)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모국어 화자의 발화 27문장(문항 번호 1에서 27까지) 중 14문장에 대해 한국어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높임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고 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다음 문장의 높임 표현에 대해 9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15) 화장품 구매 대화

P2: 각질 자체가 원활히 제거되지 못하시면 손님 전체적으로 뭐~

그리고 '-시-'를 사용해 주체를 높이는 경우 주격 조사에 '께서'를 사용한 경우는 단 2회 나타났는데 두 경우 모두 서술어에도 주체높임 선어말어미를 함께 사용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16) 가. 광고에 대한 대화

P4: 근까 우리의 분석을 이르게 달아 주구?

P5: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P4: 음, 카라나 드라마 쪽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나. 언어와 사회에 대한 토론

P1: 강사 현지 메이컵 아티스트 일을 하고 있는 강사님께서 뭐~ 직접 지도 하신다 막 그러면은, 똑같이 분장의 일을 배우는 거구 어른들이 생각하는 인제~ 판따라의 뒤처리를 해 주는 천한 일임에도, 외래어 쓰면 웬지 막 더 배운 것 같구. 그런 그런 것 땀에 더 많이 쓰는 것 같애 외래어는.

P2: 더 전문적이구.

또 다음과 같은 이중 높임의 사용이 10회 나타났는데 이는 의존명사나 보조적 연결어미 표현에서 나타나는 등 본용언과 보조용언 양쪽에서 '-시-'를 사용한 경우이다. 종류로는 '- 적 있다/없다', '- 것 같다', '- 수 있다', '-지 않다', '-지 않다', '-려고 하다'가 사용되었다.

(17) 가. 화장품 구매 대화

P2: 전체적으로 이케, 전에 과거에 화장품이나 의약품 사용하셔서, 알려지 반응 일으키신 적 있으세요?

P1: 그거는 없어요.

나. 언어와 사회에 대한 토론

P1: 누나가 다음에 한번 본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P2: 오늘은 내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사회를 많이 본 베테랑인 니가,

그리고 다음과 같이 모국어 화자는 '-시-'를 여러 어말어미에 골고루

결합하여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연결어미와의 결합이 39.9%로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종결어미와 전성어미와의 결합 비율은 각 30.1%, 30.0%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 표 9. 모국어 화자의 '-시-' 결합 어미 양상 〉

| 결합 어미 | 종결어미 | 연결어미 | 전성어미 | 총합 |
|--------|-----------------|-----------------|-----------------|----------------|
| 모국어 화자 | 30.1% (112회) | 39.9% (148회) | 30.0% (111회) | 100% (371회) |

높임 대상에 따라 '-시-' 사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10. 모국어 화자의 '-시-' 높임 인칭별 양상 〉

| 높임 인칭 \ 구 분 | '-시-' 사용 |
|-------------|-----------------|
| 1인칭 | 0%(0회) |
| 2인칭 | 86.3% (320회) |
| 3인칭 | 13.7% (51회) |

모국어 화자의 경우 1인칭 화자 스스로를 높이는 의미적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으며³⁴⁾ 2인칭은 86.3%, 3인칭은 13.7%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국어 화자는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상대방을 높이는 데에 '-시-'를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인칭의 높임 맥락은 대화에 등장하는 제삼자를 높이기 위해 '-시-'를 사용하는 경우로 13.7%에 불

34) 신지영(2019:4)에서는 '제가 아시는 분이 만든 물건이세요.'와 같은 발화는 '물건을 존대하는 것을 넘어 화자 자신을 존대하는 문법적인 오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과했다.

3. '-시-' 사용 양상 비교 분석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의 '-시-' 사용 양상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어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는 모두 '-시-'를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보다 동사에 더 많이 결합해 높임을 실현하는 양상을 보였다.

〈 표 11. '-시-' 결합 품사 양상 비교 〉

| 구 분 \ 결합 품사 | 동사 | 형용사 | 서술격 조사 | 총합 |
|-------------|-----------------|----------------|---------------|----------------|
| 한국어 학습자 | 90.3% (667회) | 7.2% (53회) | 1.8% (19회) | 100% (739회) |
| 모국어 화자 | 82.5% (306회) | 14.8% (55회) | 2.7% (10회) | 100% (371회) |

'-시-'의 총 사용 빈도 가운데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90.3%, 모국어 화자의 경우에는 82.5%가 동사에 결합한 높임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어휘의 사용 빈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모국어 화자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 빈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 용언 사용 빈도 가운데 동사 58.76%, 형용사 23.35%, 중고등학생의 경우 동사 60.80%, 형용사 22.18%로 나타났다.³⁵⁾ 즉, 화자가 사용하는 동사의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높임 선어말어미를 동사에 결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라 짐작된다.

또한 '-시-'를 동사에 80% 이상 결합하는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35) 장경희 외, 『국어 능력 발달 연구』, 역락, 2014, p.71, p.96.

의미적으로 주체의 행위나 동작 등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양상은 언어 내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먼저 선택하고 난 뒤 대상에 맞게 높임 실현 여부를 결정해 언어적으로 조합하게 된다.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행위나 동작 등을 가리키는 의미적 특성의 동사 어휘를 많이 선택해 높임 대상을 높이는 데에 ‘-시-’를 결합하는 양상을 띠는 것이며 이는 곧 직접높임의 비율이 높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표 12. ‘-시-’ 높임 유형 양상 비교 〉

| 구 분 \ 높임 유형 | 직접높임 | 간접높임 |
|-------------|-----------------|----------------|
| 한국어 학습자 | 95.8% (708회) | 4.2% (31회) |
| 모국어 화자 | 79.2% (294회) | 20.8% (77회) |

위의 <표 12>를 보면 한국어 학습자는 간접높임이 4.2%에 불과하고 모국어 화자는 20.8%로 나타나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에 ‘-시-’의 직접높임 유형은 각 95.8%와 79.2%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사 사용 비율이 높은 것과 관계가 깊다. 한국어 학습자가 ‘-시-’를 결합한 품사 가운데 동사는 90.3%이며 모국어 화자의 경우에도 82.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를 결합한 각 품사별 사용 횟수를 전체로 보고 분석한 다음의 결과에서도 품사와 높임 유형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

〈 표 13. '-시-' 결합 품사별 높임 유형 양상 비교 〉

| 품사별 높임 유형 | | 구 분 | 한국어 학습자 | 모국어 화자 |
|-----------|------|-----|---------|-------------------------------|
| | | | | |
| 동사 | 직접높임 | | 99.4% | 89.5% |
| | 간접높임 | | 0.6% | 10.5% |
| 형용사 | 직접높임 | | 62.3% | 32.7% ³⁶⁾ (27.5%)* |
| | 간접높임 | | 37.7% | 67.3% (72.5%)* |
| 서술격 조사 | 직접높임 | | 63.2% | 20.0% |
| | 간접높임 | | 36.8% | 80.0% |

* ()의 비율은 인사말 표현을 제외한 분석 결과임

위의 결과를 보면 한국어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 모두 동사가 직접높임 유형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형용사의 경우에는 한국어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인사말 표현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형용사에 '-시-'를 결합해 간접높임을 실현한 것은 한국어 학습자가 37.7%, 모국어 화자는 72.5%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학습자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 '-시-'를 직접 높임 유형으로 많이 실현하며, 형용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조 형용사에 '-시-'를 결합해 동사의 의미를 보조하는 것에 그치는 사용으로 매우 제한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모국어 화자의 경우에는 동사는 물론 다양한 형용사에 '-시-'를 결합해 간접적으로 높임을 실현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6) 모국어 화자의 말뭉치에서 인사말 표현('안녕하세요' 등)의 출현 횟수는 4회이다.

〈 표 14. ‘-시-’ 결합 어미 양상 비교 〉

| 구 분 \ 결합 어미 | 종결어미 | 연결어미 | 전성어미 | 총합 |
|-------------|-----------------|-----------------|-----------------|----------------|
| 한국어 학습자 | 54.4% (402회) | 35.6% (263회) | 10.0% (74회) | 100% (739회) |
| 모국어 화자 | 30.1% (112회) | 39.9% (148회) | 30.0% (111회) | 100% (371회) |

그리고 위의 <표 14>에서 보듯이 모국어 화자는 결합 어미 유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를 끌고루 사용해 거의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그에 비해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종결어미가 54.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연결어미 35.6%, 전성어미 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종결어미에 ‘-시-’가 결합된 전체 가운데 38.3%(154회)가 ‘-세요’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종결어미는 42.4%가 되어 연결어미 사용 비율 45.0%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 표 15. ‘-시-’ 결합 어미 양상 비교 - ‘-세요’ 형태 제외 분석 〉

| 구 분 \ 결합 어미 | 종결어미 | 연결어미 | 전성어미 | 총합 |
|-------------|-----------------|-----------------|-----------------|----------------|
| 한국어 학습자 | 42.4% (248회) | 45.0% (263회) | 12.6% (74회) | 100% (585회) |
| 모국어 화자 | 17.5% (55회) | 47.1% (148회) | 35.4% (111회) | 100% (314회) |

한국어 학습자의 ‘-시-’ 사용에서 ‘-세요’ 형태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선어말어미 ‘-시-’를 서술어의 어간에 다양하게 활용해 높임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 ‘-세요’에 결합한 용언 중에는 ‘-주세요’가 62회, ‘-보세요’가 18회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요’ 빈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써, 어휘 유형 두개의 사용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는 덩어리 표현(chunk)을 많이 사용하며 '-시-'를 활발히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어 교재의 '-세요' 제시에 대해 살펴보면 <서강 한국어>의 경우 '-시-'의 형태 자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해요체 종결어미 유형으로 제한하여 표현 위주의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1A 3과에서 명령형 종결어미 '-으세요'를 'a polite request or command'의 기능으로 먼저 제시하고 1B 3과에서 'sentence ending in the honorific form - present' 기능으로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과거형 '-으셨어요'를 'sentence ending in the honorific form - past'로 제시하고 있다. <서강 한국어>와 <한국어> 초급 I에서는 높임의 기능을 지닌 '-시-' 형태를 독립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어 학습자의 '-세요' 유형의 고빈도 사용 양상은 이러한 교재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국어 화자는 종결어미 사용 빈도 전체의 49.1%(57회)가 '-세요' 형태로 나타나 한국어 학습자보다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³⁷⁾ 마찬가지로 이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종결어미의 비율은 매우 낮아져 17.5%로 나타났고 연결어미 47.1%, 전성어미 35.4%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국어 화자의 경우에는 '-세요'의 결합 용언이 그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 한국어 학습자와는 크게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간접높임에서 결합 품사의 양상을 살펴보면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형용사가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술격 조사 22.6%, 동사 12.9%의 순이었고 모국어 화자의 경우에도 형용사의 사용 비율이 48.1%로 가장 높게

37) 해요체에 '-시-'가 결합한 '-세요'가 이처럼 종결어미 사용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양상은 여러 학자들이 하세요체를 독립적인 화제로 설정할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나타났으며 동사가 41.5%로 거의 유사한 비율로 사용되었으며 서술격 조사는 10.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 표 16. 간접높임 '-시-' 결합 품사 양상 비교 〉

| 구 분 \ 결합 품사 | 동사 | 형용사 | 서술격 조사 | 총합 |
|-------------|----------------|----------------|---------------|---------------|
| 한국어 학습자 | 12.9% (4회) | 64.5% (20회) | 22.6% (7회) | 100% (31회) |
| 모국어 화자 | 41.5% (32회) | 48.1% (37회) | 10.4% (8회) | 100% (77회) |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의 간접높임 유형의 형용사 사용 횟수 20회는 그 가운데 '있다'가 17회 나타났다. '사람', '질문', '시간', '나이', '관심'과 의존명사 표현 '- 적이 있다', 보조적 연결어미 표현 '-고 있다'가 사용되어 85%가 동일한 형용사에 '-시-'가 결합된 '있으시다'를 사용한 것이다. 그에 반해 모국어 화자가 사용한 형용사를 보면 '맛다', '하얗다', '건조하다', '예쁘다', '있다', '없다', '편안하다', '어떻다', '저조하다', '많다' 등 다양한 어휘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비율로 비교했을 때에는 한국어 학습자가 간접높임에서 형용사 사용 비율이 높으나 실제로 그 어휘가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정보량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표는 간접높임 유형 중에서 '-시-' 높임의 확대 양상을 비교한 것이다.

〈 표 17. '-시-' 높임의 확대 양상 비교 〉

| 구 분 \ 높임 유형 | 일반 간접높임 | 높임의 확대 |
|-------------|----------------|----------------|
| 한국어 학습자 | 90.3% (28회) | 9.7% (3회) |
| 모국어 화자 | 77.9% (60회) | 22.1% (17회) |

위의 결과를 보면 모국어 화자는 간접높임 유형 가운데 22.1%가 '-시-' 높임의 확대 양상을 나타냈고 한국어 학습자는 이에 비해 낮은 9.7%로 나타났다. 한국어 학습자는 공손성을 드러내기 위해 의미적으로 높여야 할 대상이 아닌 경우에 '-시-'를 과잉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으나 이에 비해 모국어 화자는 '-시-'를 확대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 표 18. '-시-' 높임 인칭별 양상 비교 〉

| 구 분 \ 높임 대상 | 한국어 학습자 | 모국어 화자 |
|-------------|-----------------|-----------------|
| 1인칭 | 1.9% (14회) | 0%(0회) |
| 2인칭 | 49.7% (367회) | 86.3% (320회) |
| 3인칭 | 45.5% (336회) | 13.7% (51회) |
| 명확하지 않은 경우 | 2.9% (22회) | 0%(0회) |
| 총합 | 100% (739회) | 100% (371회) |

그리고 '-시-'를 청자를 높이는 데에 많이 사용하는 양상이 한국어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 모두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화자보다 ‘-시-’ 형태를 구어 담화 상황에 직접 대면하고 있지 않은 제삼자를 높이는 데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와 관련해 한국어 교재의 ‘-시-’ 제시 내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서울대 한국어>의 경우 1B 9과에서 ‘A/V-(으)시-’가 명시적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그에 앞선 내용에서 ‘N(이)세요’가 제시되는데, ‘-시-’보다 ‘-세요’ 종결어미 유형이 먼저 제시되는 셈이다. 그리고 ‘-시-’의 기능에 대해 ‘문장의 주어가 되는 사람이 화자보다 사회적으로 높게 인식될 때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예문에서 높임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는 대상은 3인칭 주체(아버지, 선생님, 할머니, 사장님 등)로 한정되어 있다. <서울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다른 한국어 교재에서는 ‘가족’을 주제로 한 단원에서 ‘-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세 한국어>에서도 ‘가족’ 주제로 1A 3과에서 ‘-시-’를 제시하고 있다. ‘부모님은 어디에 계십니까?’라는 문장으로 어휘적 높임 ‘계시다’를 먼저 제시하고 ‘-으시/시-’의 용법과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문법 설명의 경우 ‘It is used to express respect for the subject (of the sentence).’로 문장 주어를 높이는 기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 교재에서는 ‘-시-’를 주로 문장 주어의 사회적 지위나 나이를 고려하여 높임 기능을 수행하는 문법 범주로 설명하면서 예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모국어 화자의 경우에는 대화 상황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청자(2인칭)를 높이는 데에 ‘-시-’ 형태를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주체높임 선언어말어미가 화자가 공손성을 드러내고자 의도적으로 선택해 사용하는 문법적 장치인 점에 비추어 보면 모국어 화자는 ‘-시-’를 사용해 대화 당시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삼자보다 직접 대면하고 있는 상대방을 높임으로써 ‘-시-’를 청자 높임의 의도로 더욱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국어 화자의 언어 사용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서 나타나지 않은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시-'를 사용해 청자를 높이면서도 반말체를 사용한 점으로, 이 같은 양상은 한국어 학습자의 말뭉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18) 가. 식이요법에 대한 진료 대화

P1: 오신 날이 혈압이 높으시네.

P2: 예.

나. 광고에 대한 대화

P4: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랑 똑같네요, 어 어 대단하시네.

P1: 아니에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반말 종결어미와 '-시-'를 함께 사용한 맥락과 관련해 화자의 높임 의도가 느껴지지 않으며 심지어 비공손의 의도까지 느껴진다는 응답이 있었다.³⁸⁾ 이것은 높임어미의 실현 여부에 따라서 꼭 공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음³⁹⁾을 보여 준다.

38)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는 청자가 곧 주체일 경우 청자를 높이는 상황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자 요인에 따라 상대높임은 높임 자질을 지닌 하십시오체, 헤요체, 하오체와 호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처럼 해체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양상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높임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의 높임 자질 일치에 관한 것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이 같은 사용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모국어 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들의 언어 자료가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39) 허상희, 『한국어 공손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소통, 2012, p.60.

V.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자의 '-시-' 사용 양상을 모국어 화자의 사용 양상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두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 학습자의 '-시-' 사용 양상은 어떠하며 이를 모국어 화자의 사용 양상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가?

첫째,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화자와 동일하게 '-시-'를 동사에 결합해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동사에 '-시-'를 결합해 사용한 경우 직접높임 유형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화자와 동일하게 '-시-'를 직접높임 유형으로 실현시키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화자와 달리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 '-시-'를 결합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높임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간접높임 유형의 경우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화자와 동일하게 동사보다 형용사에 '-시-'를 결합해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국어 화자보다 그 형용사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고 또 선행하는 동사의 의미를 보조하는 보조 형용사에 주로 '-시-'를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어 학습자는 '-시-'를 결합해 사용하는 어말어미 분석에서 '-세요' 형태를 제외하지 않았을 경우에 모국어 화자와 달리 종결어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요' 형태를 제외하고 분석한 경우에는 연결어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국어 화자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다.

다섯째,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화자와 달리 '-시-'를 통한 높임의 확대 양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한국어 학습자는 '-시-'를 사용해 직접 대면하고 있는 청자를 높이는 데에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모국어 화자의 2인칭 높임에 비하면 그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한국어 학습자는 2인칭과 3인칭을 높이는 데에 '-시-'를 사용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2. 위의 분석 결과가 '-시-'의 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시-'와 관련하여 첫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서 동일한 형태의 '-세요' 종결어미보다 다양한 어말어미와 다양한 품사에 결합해 높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모국어 화자의 언어 사용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한국어 교재에서 '-세요' 종결어미보다 연결어미나 전성어미에 결합한 '-시-'의 노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가 초급 문법 항목이니 만큼 결합하는 용언의 난이도에 따라 그 용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한국어 학습자가 '-시-' 형태를 용언에 결합해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세요'가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본래의 형태를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의 결합을 통해 간접높임을 실현할 때 제한적으로 '있으시다' 어휘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모국어 화자와 같이 다양한 형용사 및 동사와의 결합을 통해 높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높임의 확대와 관련하여 한국어 학습자는 그 양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높임 대상을 문장 안에서 복구할 수 없거나 과잉 높임의 양상을 띠는 사용의 예를 초급에서부터 강조해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숙달도 고급 단계에서는 이러한 과잉 높임의 양상도 한국어 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제 모국어 화자의 ‘-시-’ 사용 양상을 노출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초급에서 다루는 높임말과 호칭어 등이 아니라, 서비스직업군의 언어 사용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시-’를 통한 높임 양상이나 화자가 공손성을 표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를 사용하는 등의 언어문화와 관련하여 상황별로 제시하는 것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구어 담화에서 청자를 높이기 위해 ‘-시-’를 사용하는 맥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현대국어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청자 높임의 기능을 더욱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시-’ 사용 양상은 한국어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의 언어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로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시-’와 같은 높임 문법 범주를 통한 공손성 실현 양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며 생활하고 있는 다양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관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가 많은 점에서 부족하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남기심 ·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1993.
- 민현식, 『국어문법 연구』, 역락, 1999.
- 박석준, 「현대국어 선어말어미 '-시-'에 대한 연구 - 의미 · 기능, 관련 구문의 구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박성일, 「인칭 범주에 기반한 한국어 경어법 교육 연구: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서상규 · 안의정 · 봉미경 · 최정도 · 박중후 · 백해과 · 송재영 · 김선혜, 『한국어 구어 말뭉치 연구』, 한국문화사, 2013.
- 안희돈 · 임인재 · 전문기 · 한정임 · 황중배 · 홍우평, 「모국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접사형태 처리」, 『인문학논총』 제48집,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09, pp.179-229.
- 엄진숙, 「한국어 학습자의 공손성 실현 양상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오광근, 「한국어 교재의 경어법 대화문 제시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 『새국어교육』 제94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pp.341-360.
- 오현아, 「선어말어미 -시-의 문법 교육 내용 검토 · -시-의 청자 높임 기능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40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pp.157-180.
- 이금양,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불평 화행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 중국 내 20대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관규, 『(개정판) 학교문법론』, 월인, 1999.
- 이익섭, 『국어학 개설』, 학연사, 1986.
- 이정복, 『한국어 경어법, 힘과 거리의 미학』, 소통, 2009.
- , 「상황 주제 높임 '-시-'의 확산과 배경」, 『언어과학연구』 제55집, 언어과학회, 2010, pp.217-246.
- 이정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거절 화행 전략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장경희 · 이필영 · 김태경 · 김정선 · 김순자 · 전은진, 『구어 능력 발달 연구』, 역락, 2014.
- 허상의, 『한국어 공손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소통, 2012.
- 홍승아, 「한국어 학습자의 주제 높임법 습득 연구 - 중 · 고급 학습자의 오류 분석을 통하여

-], 『한국언어문화학』 제11집 3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4, pp.271-290.
- 윤은미, 「한국인과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거절화행 비교 연구: 체면과 공손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채영주, 「요청 대화에 나타난 공손 표현 사용 연구: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Bardovi-Harlig, K., & Harford, B. S., Refining the DCT Comparing open questionnaires and dialogue completion tasks, *Pragmatic and language learning* Vol. 4, 1993, pp.143-165.
- J. Cesar Felix-Brasdefer, Interlanguage Refusals: Linguistic Politeness and Length of Residence in the Target Community, *Language Learning* 54(4), 2004, pp.587-653.
- Ho-Min Sohn,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한국어 교재>

- 한국어 초급 I, II,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 경희대학교 출판국.
- 말이 트이는 한국어 I, II,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서강 한국어 1A, 1B,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대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 서울대 한국어 1A, 1B,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TWO PONDS.
- 연세 한국어1-1, 1-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대학교 출판부.

<인터넷 자료>

- 신지영, 「공손성이 문법성을 이길 때」,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2019년 4월호, <http://news.korean.go.kr>
-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http://kcorpus.korean.go.kr>
-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http://ithub.korean.go.kr>

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the Honorific Suffix ‘-si-’ by
Learners of Korean

Eom, Jin-suk

The use of the Korean honorific suffix ‘-si-’ can be explained as a grammatical form of expressing politeness toward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learners of Korean use the honorific suffix ‘-si-’ in spoken language. This study presented six findings by analyzing the results of spoken corpus by learners of Korean opposed to Korean native speakers. First, ‘-si-’ was used in verbs to express politeness more than in adjectives and a predicative particle(‘-ida’). Secondly, ‘-si-’ was used in a direct honorific sentence the most and ‘-si-’ appeared in all word categories. However, this was different from the use of ‘-si-’ in the indirect honorific sentences with adjectives and a predicative particle in the case of Korean native speakers. Furthermore, the learners of Korean used a very high percentages of ‘-si-’ with adjectives in the indirect honorific sentences however the kind of vocabulary was very limited. Learners of Korean also used ‘-si-’ in a final-ending at a high rate due to the high rate of using ‘-seyo’ as a final-ending, but with few word types. As a result of analysis, excluding ‘-seyo’, ‘-si-’ was used the most in a connective ending in both groups. In addition, learners of Korean rarely spoke ‘-si-’ for extension use compared to Korean native speakers. Lastly, ‘-si-’ was more commonly used to address a listener directly as opposed to a third party in both groups. The percentage was relatively low in the cases of learners of Korean than in the Korean native speakers. Through this results, this study showed a necessity to present ‘-si-’ in various endings as well as to express politeness to a second person in Korean textbooks.

Key Word: Honorific Suffix '-Si-', Learners of Korean, Korean Native Speakers, Direct Honorific Sentence, Indirect Honorific Sentence, Extension Use of '-Si-'

엄진숙

소속: 영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강사

전자우편: th0206@ynu.ac.kr

이 논문은 2019년 4월 27일 투고되어
2019년 6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6월 17일 게재 확정됨.